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명: 캄보디아 협력사업 성과측정 기반 마련 및 평가
연구과제명: 2025년 국제농업협력(ODA) 성과관리

1. 출장 목적

- 캄보디아 농업 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 개발센터 지원사업
 - (현장 모니터링)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시범포, 양계장 등 핵심 시설물 구축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파악
 - (이해관계자 심층 면담) 캄보디아 농촌개발부(MRD), 사업 운영기관, 수혜 농가 등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성과목표의 현실성과 성과지표의 측정 가능성을 분석하며, 목표 달성과 성과관리 수행을 위한 관계자 간 협력방안을 도출
 - (성과측정 기반 마련)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수행할 현지 전문기관과의 과업 범위 설정과 계약 체결 사전협의 를 통해 성과관리의 신뢰도와 효율성 확보
- 캄보디아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사업
 -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농업훈련센터, 농기계, 수확후관리 시설 등 지원된 시설 및 기자재의 현재 운영실태와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술교육과 역량 강화에 참여한 농민과 공무원의 영농 지식 변화와 생산성 증대 효과 등 사업의 중장기 성과 와 지속가능성을 평가
 - (사후관리 체계 점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등 수원국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와 자체 사후관리 시스템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양국 간 농업협력 지속 방안을 논의
 - (현지 데이터 수집)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혜자, 비수혜자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한 평가 설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할 현지 조사 전문기관과의 과업 협의 및 계약 체결 사전협의를 추진

2. 출장자: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위촉연구원,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3. 출장 기간 및 지역: 2025.8.31.~9.7(총 6박 8일), 캄보디아 Takeo, Svay Rieng 등

4. 일정표

No	일 자	장 소	수행 업무
1	8.31. (일)	○ 인천(ICN) → 프놈펜(P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출발(18:50, KE689, 5시간 20분 소요) 프놈펜 도착(22:10)
2	9.1. (월)	○ 농어촌공사 캄보디아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소장 면담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 PM 면담(사업 이행현황 등 성과관리 정보 수집-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지표 이행 관리체계 점검 등)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캄보디아 중점협력 분야 및 농식품 개발협력 현황 조사 향후 양국 협력 방향 및 실행전략 파악
		○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캄보디아 개발협력 및 농업협력사업 현황 조사 현지 특수성 등 ODA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파악
3	9.2. (화)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농업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사업 추진현황 파악 후속 연계 협력사업 수요 파악 및 추진 논의
		○ 캄보디아 농촌개발부(M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농촌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사업 추진현황 파악 농촌공동체개발센터 활용 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 기초선조사 수행계획 공유 및 관련 자료 요청
		○ IFAD 캄보디아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유사 목적 사업(Accelerating Inclusive Markets for Smallholders (AIMS), ASPIRE-AT) 구성, 추진 경과, 성과 및 애로사항 청취 시장 접근성 향상 전략 및 사업 연계 가능성 논의
4	9.3. (수)	○ 프놈펜 → 스바이리엥(Svay Rie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놈펜 출발(3시간 소요)
		○ 농업훈련센터(A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장 면담 및 센터 운영, 시설 현황 파악
		○ 스바이리엥주 정부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정부 사업추진과정 역할 및 기여도 조사
		○ 농업지도국(DAE)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지도사업 관계자(사업담당자, 농촌지도사 등) 면담
		○ 인근 현지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바이리엥산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 및 판매 현황 조사
		○ 스바이리엥 →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바이리엥 출발(3시간 소요)
5	9.4. (목)	○ 프놈펜 → 타케오(Tak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놈펜 출발(2시간 소요)
		○ 인근 마을 및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참여 및 미참여 농가 면담(초점집단면접) 영농기술센터 이용 경험 및 재배기술 참여 효과, 생산성 및 소득 변화 등 조사
		○ 타케오 →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케오 출발(2시간 소요)
6	9.5. (금)	○ 프놈펜 → 타케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놈펜 출발(2시간 소요)
		○ 인근 마을 및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지도자, 조합장 등 면담 교육대상 농민 초점집단면접 농산물 재배 현황 및 희망 교육 내용 파악
		○ 농촌공동체개발센터(Rural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구축 현황 및 완공 후 운영 계획 파악
		○ 타케오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및 지역 정부 간 협력 체계 타케오주 정부 정책 우선순위 및 개발의제 타케오주 농업 생산 및 농업소득 현황 파악
		○ 타케오 →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케오 출발(2시간 소요)

7	9.6. (토)	○설문조사 위탁업체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 지시서 협의 및 위탁조사 계약 체결 사업 이해관계자 조사 세부 사항 논의
		○프놈펜 현지 시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류, 달걀 등 관련 품목 유통 및 판매 현황 조사 도소매상, 중간상인 면담, 마트 품목 및 가격 확인
		○프놈펜(PNH) → 인천(I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놈펜 출발(23:30, KE690, 5시간 30분 소요)
8	9.7. (일)	○인천(I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입국(07:00, +1일)

6. 출장 결과

1) 한국농어촌공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및 관계자 회의

☐ 일시: 2025. 9. 1.(월) 10:30~11:30

☐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캄보디아 사무소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KRC 한종수 소장, 안성수 부장, 김두환 PM

☐ 주요 논의내용

[평가 및 성과관리 대상 사업별 조사 일정 및 내용 논의]

○ (성과관리) 대상 마을과 수혜자 선정 계획 및 기준 확정을 위해 일부 시범 마을 방문, 마을별 농가와 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의 초점집단면접 시행

○ (사후평가) 사업대상지 관계기관과 교육 참여 대상 농가 방문 계획 및 평가 방향 공유, 농어촌공사 캄보디아 사무소 동행 및 지원 예정

[사업 대상 마을 및 수혜자 선정]

○ 기초선 조사 수행을 위한 수혜자 선정이 시급함을 전달하며, 잠재적 수혜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준비 가이드라인을 전달함(성별 분리 농민 그룹 구성, 마을 운영위원 참석 등).

○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논의) 농촌공동체개발센터 내 구축할 시범포를 활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센터 자체 수익 창출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시범포에 재배되는 농산물 판매 수익은 센터 운영 예산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범포 수확물 판매 예상 수익을 산정해보아야 하며, 실제 안정적인 판로 확보 가능 여부도 따져보아야 함.

- 기존 KOICA 농촌개발 사업의 시범 마을로 선정되었던 10개 마을을 이 사업의 수혜 대상 지역에 포함할 계획임.
- 기존 10개 마을은 칸달주 인근의 5개 마을과 타케오주 내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2개 신규 시범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자 함. 한 마을당 대략 2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기존 시범 마을과 신규 추가 마을 중 일부는 양어와 직조 위주의 생계를 꾸리며 이 사업의 대상 품목인 오이와 양계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기존 시범 마을 농가(주민)의 본 사업참여 의지나 역량이 높다고 판단함.

[초청연수 운영 계획 및 현장 사업추진 현황]

- 10월 중 진행 예정(10월 10일부터 약 1주간 10여 명 대상)이며 사업 기본조사를 추진한 업체가 초청연수를 준비 중임. 고위 공무원을 대상의 정책연수와 실무진 대상의 기술 및 실무연수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함.
- 현지 워크숍 및 정책 포럼 등의 행사 진행 시 Quick Survey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면 초청연수 참석 예정자의 관심도나 역량에 관한 기초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 농촌개발부 타케오 지역사무소에 이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이 구성됨. 시범 마을 세 곳은 착수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음.

[사업대상지 농업 현황]

- 사업대상지는 소규모 농가 비중이 크며, 소농들은 채소류 재배와 축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 저지대의 규모 있는 농가들이 벼농사에 관여하기도 함.
- 소, 닭 등의 가축을 주로 사육하며, 사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로 방목에 의존함. 시범포에서 사료 작물 재배 후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한다면 센터 수익원 확보가 가능한 동시에, 축산(양계)농가의 사료비 부담도 덜 수 있음.

- 아울러, 시범포에서 사료 작물 재배, 수확후관리, 가공 교육을 시행하여 농가 내 자체 사료 제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고품질 사료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대상의 사양관리 교육도 병행하면 효과적일 것임.

[대상 품목 검토 및 확정 논의]

- 유통과 판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PMC 측 의견임. 이는 해당 지역의 채소 유통업자들의 품목별 수요가 일정하지 않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달하고자 하는 채소 작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교육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PMC 측은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작물의 변경 또는 추가 가능성을 고려하기를 희망함.
- 농어촌공사(사업관리)와 농경연(성과관리)은 본 사업 대상 지역생산환경에 적합하고 시장성이 큰 작물을 최대 3~4개로 한정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사업 수행과 성과 창출에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라 판단함.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와 기초선 조사 계획 수립 시 지역 농업 생산 통계자료를 근거로 국내 시장 수요가 큰 작물 위주로 후보 채소 품목 2~3개를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선정한 추가 대상 작물에 관한 생산 수량, 수율, 단위가격 등을 기초선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겠음. 수집된 작목별 기초선 데이터는 향후 중간선과 종료선 조사 시 지속 활용 가능함.

[사업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익 창출 필요성]

- 기본적으로 사업 결과물은 캄보디아 중앙 정부에 이양되지만, 예산 지원 등 지자체 협력의 구체적인 모델이 있다면 중앙에서 지방 정부(타케오 주)로 센터 등 시설의 운영권을 이전할 수 있음. 이에 관한 선례가 있음.
 - 가령, 몬둘끼리 주 씨감자 사업은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 사후 시설 운영을 위해 협력한 사례이며, 캄퐁참 건조저장 시설 사업의 경우, 농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설 활용을 통한 저장, 판매 수익을 창출, 분배

할 수 있게 하는 사후 운영 구조를 취하였음.

- 농가공, 농촌관광 등 신규사업 모델 개발 필요성이 있음. 농촌관광 모델에 관한 아이디어는 사업지 주변의 인공호수 개발 가능성에 관한 캄보디아 농촌개발부의 의견에서 출발하였음. 인공 저수지를 활용하여 농업용수 공급 원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논의된 적 있으나, 본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힘들.
- 본 사업 기간과 예산으로 실질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농촌관광 사업 모델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인공호수 규모가 크지 않으며, 터가 대로변에 위치하기는 하나, 단기간에 관광소득원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작음.
- 대신, 센터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소규모 정비 활동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임.

[성과관리 및 기초선 조사 관련 제언]

- 기초선 조사 시 설문 대상 농가를 규모별로 구분하거나 농지 소유권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기를 제안함.
- 사업대상지 농가들은 소농이며 소작농인 경우가 대다수임. 일부 대규모 농가나 농지를 소유한 농가들의 농업 생산 및 자산 현황, 사업 전후 효과 등은 다수인 소규모 농가 또는 소작농과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임차농이 다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통해 시장성 있는 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은 실현하기 어려움.
-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영농 규모와 형태에 따라 채소 재배 작기, 수확량, 판매량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사업의 본격적 착수 전 기초선 조사로 파악해보는 것이 유용할 것임.



9.1.(월) 한국농어촌공사 캄보디아 사무소

2)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및 면담

☐ 일시: 2025. 9. 1.(월) 15:00

☐ 장소: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송민성 주재관, 문배움 서기관

☐ 주요 논의내용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리체계]

○ 캄보디아에서는 연간 약 60여 개의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농업 분야는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대사 주재로 분기별 ODA 점검 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KRC, KOICA 등 주요 집행기관이 참석하여 사업 이행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 올해 7개 ODA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 간 연계성 및 연속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수원국 정부의

사업 참여 적극성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 EBS와 유사한 교육방송 콘텐츠 제작 사업, 국립 민간 항공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은 캄보디아 정부의 높은 관심과 주인의식에 기반하여 후속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개발 사업보다는 명확한 수혜 주체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이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유리함을 시사함.

[캄보디아 ODA 정책 기조 및 전략 방향 전환]

- 캄보디아를 포함한 전체 ODA 예산이 약 20% 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며, 내년도 ODA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발표 이후 정책 기조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
- 대사관 측에서도 현재 국가협력전략(CPS) 개정안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임.
- 캄보디아 정부 측의 개발협력 수요와 글로벌 개발의제를 고려할 때, 기후 변화 적응, 디지털 전환 등 범 분야 이슈가 농업·농촌개발과 융합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대사관 측은 ODA 사업에 우리 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이고 지속되는 개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함.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사업 성과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이 필수적임.
- 캄보디아 정부는 ODA 사업 종료 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마련하기보다는 공여국에 후속 사업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함. 이러한 원조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간 부문 참여형 접근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캄보디아에서 추진 중인 ODA 사업들은 사업명만 상이할 뿐 유사한 활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간 중복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캄보디아 개발협력 사업 추진체계 개선 방향]

- 현재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집행기관이 캄보디아에서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간 조정 및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부처·다기관 분절적 사업 수행 방식보다는 사업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야 간 연계와 사업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와 수원국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조효과성 원칙과도 부합하는 접근임.

[현지 농식품 시장 현황 및 가치사슬 구조적 제약]

- 캄보디아는 쌀, 카사바 등 주요 농산물의 1차 생산 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수확후관리 기술 및 가공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쌀의 경우 생산 후 중국, 베트남 등 인접국으로 수출되어 가공된 후 역수입되는 비효율적 가치사슬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수확 후 처리시설, 가공시설 등 중간 단계 가치사슬 강화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캄보디아 내 농업 분야에서는 소수의 국내 기업이 활동 중임.
 - 현대아гро 법인은 캄보디아산 망고 등 열대과일을 한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돈 기업인 기흥은 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베트남 시장으로 수출하는 축산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의 농식품 정책 우선순위 및 시장 동향]

- KOTRA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 관광, 제조, 농식품 분야가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쌀, 카사바 등 전략 작목 중심의 명확한 품목별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무역 분야에서도 캐슈넛, 후추, 망고, 두리안 등 수출 경쟁력을 갖춘 특화

품목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유통 비용과 물류 인프라 취약성으로 인해 시장 접근성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이에 따라 유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ODA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캄보디아는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국가로 분류되며, 산업부, 산림청 등이 관련 정책을 관장하고 있음. 이는 향후 기후금융 및 녹색성장 연계형 농업 개발 사업의 잠재력을 시사함.
- 정부는 쌀 생산의 품질 고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나, 다모작 제한 등 품질 관리 정책이 시행될 경우 농민의 단기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정책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쌀 가격 하락(kg당 약 300원 수준)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 소득 감소와 직결되는 정치적 민감 사안임.

3)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방문 및 면담

☐ 일시: 2025. 9. 2.(화) 10:00

☐ 장소: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신용화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부소장

☐ 주요 논의내용

[캄보디아 내 KOICA 시범 마을 사업추진 현황 및 특성]

- KOICA는 캄보디아 3개 주(타케오 주, 캄퐁스프 주 등)에서 농촌공동체개발사업(舊 새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의 핵심은 마을 단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에 있음.
 - 각 시범 마을의 수요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보건소, 식수 공급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
- 시범 마을 사업에는 KOICA 상주 사업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기 간 현장 상주를 통해 수혜 주민들과 신뢰 관계(rapport)를 형성한 상태임.
 - 이러한 신뢰 기반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보에 핵심적

인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시범 마을을 포함한 농촌개발 사업의 수혜 지역 선정 시에는 가구 소득 수준, 기초 인프라 접근성, 중심 시장과의 거리, 가구 규모, 취약계층(아동·여성·장애인) 비율 등 다층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조치임.
- 과거 새마을운동 방식의 해외 이전 경험을 통해 대규모 연수원이나 역량강화센터를 건립하는 인프라 중심 접근법은 현지점에 적합하지 않다는 교훈이 도출되었음.
- 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 인력 확보, 경상예산 투입, 수원국 정부의 인센티브 체계 부재 등 제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후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임.
 - 이에 따라 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s) 등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캄보디아 ODA 사업추진 환경과 제도적 역량 현황]

- 캄보디아에서는 농림수산부(MAFF)와 농촌개발부(MRD) 간 관할 영역과 기능이 중복되는 제도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 MAFF는 농업 분야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조 조화나 수원 절차 이행 역량이 부족한 데 반해, MRD는 공여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거나 농업기술 관련 실질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한계를 보임.
- MRD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개발 기능과 농촌개발 정책사업 관리라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KOICA는 MRD를 주요 사업 이행 파트너로 설정하여 농업기술 이전, 생산자 클러스터 구축, 시범 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시범 마을 사업은 하향식 사업 추진체계를 따르고 있어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 조율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비교적 적은 편이나, 수원 기관과의 신뢰 구축과 주인의식 형성이 사업 성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함.
- 캄보디아 정부 부처는 공공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금

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사업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 이는 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윤리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의미함.

- 공익적 농촌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지방정부·공여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행 가능성과 역량에 제약이 있음.

- MRD를 파트너로 한 KOICA의 농촌공동체개발사업은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범적 성격을 띠고 있음. 향후 농업기술 교육 외에 문해 교육, 보건위생 교육 등 사회적 역량 강화 요소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사업의 개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봄.

[성과관리 대상 농촌공동체개발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제언]

- 시범 마을 차원에서 시장 연계 및 판로 개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농 생산자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며, 농업인 협동조합 형태가 가장 지속 가능한 집단행동 모델이라 판단됨.
 - 이는 농산물 규모화, 품질 표준화, 시장 협상력 확보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체계의 구조적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임.
- 시범포장 조성 방식과 이를 통한 교육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농민의 실제 경작지를 활용한 현장 기반 영농교육(on-farm training) 방식이 기술 이전과 확산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경우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보급과 지식 공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반면 유럽과 미국의 농촌지도 체계에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해당 모델의 수원국 맥락 적합성에 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함.
- KOICA는 농업 생산량 증대 자체보다는 농촌 주민의 기술적·경영적 역량 강화에 사업의 전략적 초점을 두고 있으며, IBS 사업 등 민간 부문 참여형 개발협력 방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음.
 - 이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자원 제약을 민간 부문의 혁신성과 시장 동력으로 보완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자생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기반함.

4)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회의

☐ 일시: 2025. 9. 2.(화) 11:00

☐ 장소: MAFF 회의실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Meach Sary(Chief of Office), Khat Sotheara(Official) 이상 MAFF,
Chy Sreyphreak(통역)

☐ 주요 논의내용

[DEAFF(Department of Extensio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설명]

○ MAFF 산하 부서로, 농림업수산 분야의 기술 보급(extension service) 및 현장 중심 농민 지원 활동 담당

○ MAFF 산하 부서로, 농림업수산 분야의 기술 보급(extension service) 및 현장 중심 농민 지원 활동 담당

○ Province 단위의 농업 부서들과 협력하여 현지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 지원

○ 1 Commune - 1 Officer 체계 지향하며, 현재 5개 사무소 중심으로 운영
(General, Mekong Upland, Mekong Lowland, Sea region, Tonle sap region)

○ 평가 대상 사업지역인 Svay Rieng은 Mekong Lowland에 포함됨.

○ 콜센터(1289) 운영하여 농민들의 농업기술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

○ 캄보디아 농업정책 최우선 과제로 CAO(Commune Agricultural Officer) 운영 사업 추진 중(현재 CAO 250명 채용하였으며, 1,000명 수준 확대 예정)

○ CAO는 과거 CEO 체제에서 발전된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급여를 받던 CEO와 달리 MAFF 소속 직원으로 급여를 받음.

○ 농업훈련센터(ATC) 유지관리 비용 대신 많은 예산이 CAO에 투입되는 상황

[평가 대상 사업 관련 논의]

○ 기존 사업지 내 유사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지 변경(Kampong Speu →

Svay Rieng) 추진함

※ '17 무상원조계획 심의과정에서 KOICA 새마을 연수원 구축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로 외교부 재검토 요청 → 신규사업의 대상지 변경 협의

- 신규 사업지(Svay Rieng) 내 기존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 변경하여 추진함.
- Svay Rieng은 수도 프놈펜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편이나(차량 편도 2시간 30분)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지역 내 시장에서 판매됨.
- Svay Rieng 지역 주요 생산 작물은 쌀이며, 베트남과 태국으로 수출됨.
- 쌀값 하락 문제를 겪고 있으나, 채소 작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

[사업 기간 내 프로젝트 효과성(교육, 기술 적용 효과)]

- 농민들이 여러 농업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고 대체로 효과적이었으나, 수경재배 기술(hydroponics)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농민들이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
- 수경재배를 위한 대형 온실들이 설치되었지만,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줄 전문가가 파견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함(한국에서 보내온 장비를 보관하고만 있는 상황).

[사업 종료 후 현황]

- 사업 종료 후 시설(천장, 부엌 등)에 문제가 생겨 MAFF 측 예산으로 수리했으나 추후 문제 반복되어 현재는 방치된 상황
- 현재는 센터 직원들(관리자 1명, 직원 2명)이 센터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한 수익으로 시설 유지·관리 중이며, 큰 비용이 필요한 경우 MAFF에 요청
- 직원들 교육 역량 갖추고 있으나, 사업 종료 후 예산 지원이 없어 사실상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많은 예산이 CAO에 집중되어 있어 센터까지 예산 배분 어려운 상황
- CAO 배치 완료된 후 그들이 센터를 이용하여 농민들 교육하는 방식 구상 중

[향후 ATC 운영 계획]

- 센터 운영 마스터 플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Svay Rieng과 Kratie 지역에 설치된 2개의 센터 외에 Tonle Sap, Mekong Upland 지역 내 2개 센터 추가 구축 예정
- CAO들이 각 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나 아직 운영 가이드 라인은 없음.
- 현재 캄보디아 정부 개혁(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개편 완료된 이후 계획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함.

[사업 관련 주 정부 역할]

- 각 주에 MAFF 산하기관인 PDAFF(Provincial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설치되어 있음.
- PDAFF에서 농민 교육을 위한 교관들 파견됨(일부는 DEAFF에서 파견)



9.2.(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회의



9.2.(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회의

5) IFAD 캄보디아 사무소 방문 및 면담

- ☐ 일시: 2025. 9. 2.(화) 13:00
- ☐ 장소: IFAD 캄보디아 사무소
-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Suos Pinreak (Program and Environment Specialist, IFAD)

□ 주요 논의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개발협력 업무 수행 체계]

-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개발협력 정책 연구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전문성을 축적해왔음.
- KREI의 주요 역할은 사업 직접 집행이 아닌 사업 기획 및 평가이며, 최근에는 개별 사업 단위 평가를 넘어 포괄적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IFAD ASPIRE 프로그램 재원 구성 및 정부 공동재원 조달 현황]

- ASPIRE 프로그램의 총사업비는 약 1억 9천만 달러 규모이며, 이 중 IFAD가 약 6천만 달러를 차관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연합(EU)이 각각 차관 및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나머지는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자금으로 충당됨.
-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자금은 주로 현물 기여 형태로 제공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수행 인력 배치, 사무 공간 제공, 사무기기나 차량 등 장비 조달 등으로 구성됨. 이러한 현물 기여 방식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수원국 정부의 공동재원 조달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접근법임.

[농촌금융 접근성 개선 사업 운영 체계 및 이자율 구조]

- ASPIR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농촌금융의 차입 농가 대상 이자율은 연 7~8%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는 캄보디아 농촌 지역의 일반적인 비공식 금융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소농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농민 조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축 및 대출 체계에서는 회원들

에게 약 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됨.

- 이는 농민 조직의 자생적 금융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금융 이익을 직접 환원하는 포용적 금융 모델임.

[대출 상환 현황 및 농촌금융 위험 관리]

- 농가의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다수의 구조적 어려움이 확인됨. 이는 캄보디아 농가뿐 아니라 캄보디아 전반의 신용 문화나 금융 이해력 수준과 연관되어 있음.
- 일부 차입자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대출을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부담하여 대출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출 심사 시 거절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 예를 들어, 100건의 대출 신청이 있으면 상당수가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거부됨.

[IFAD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 IFAD는 프로젝트별로 명확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의된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도구, 그리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상세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팀과의 직접 협의가 가능함.
 - IFAD의 사업 관련 출판물 및 보고서는 온라인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개별 프로젝트 웹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음. 프로젝트별 세부 문서의 공개 여부는 프로젝트팀에 확인이 필요함.
- 성과관리 측면에서 역량 강화, 금융 접근성, 시장 연계 등은 변화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임. IFAD는 정성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외부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고용하여 기초선 조사, 중간선, 종료선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증거를 결합한 혼합방법론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맥락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가능함.

[후속 협력 방안]

- IFAD는 금주 금요일부터 ASPIRE 프로젝트 현장 점검을 시작하며, 다음 주부터 2주간 ASPIRE 사업과 밀접히 연계한 “농산물 시장, 비즈니스, 교역을 위한 지속가능 자산사업 (Sustainable Assets for Agriculture Markets, Business and Trade Project: SAAMBAT)” 프로젝트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 현장 모니터링 활동은 사업 이행 현황 점검 및 수혜자 피드백 수집을 목적으로 함.
- 향후 KREI와 IFAD 간 성과관리 방법론, 평가 도구, 사업 문서 등에 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수요는 이메일을 통해 후속 협의할 예정임. IFAD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 및 피드백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함.

6) 캄보디아 농촌개발부(MRD) 회의

☐ 일시: 2025. 9. 2.(화) 15:00

☐ 장소: MRD 회의실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Oeun Thearith (Director), Mey Mithona (Deputy Director), Men Vyreak (Chief of Office), Phat Sokunthea (Vice Chief of Office), Chy Sreypheak (통역), 김두환 PM

☐ 주요 논의내용

[사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일정 논의]

- 사전에 공문 통해 사업지 방문 및 이해관계자(주 정부, 사업지 인근 농가 등) 면담 요청함.
- Takeo Province 내 MRD 직원 통해 면담 세부 일정 조정 요청

[프로젝트 수혜자 선정 기준 논의]

- 과거 KOICA 사업(2014~2018년)으로 시범 마을 선정하여 영농기술 전수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MRD로 이관됨.
- 시범 마을 사업은 캄보디아 개발 전략 5개년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MRD 내 주요 사업 중 하나임.
- 새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 중이나, 시범 마을 사업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기존 시범 마을 사업에 이번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지속성 및 효과성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중
- MRD에서 농가를 교육하여 발전시키고 협회를 조직한 뒤 MAFF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구상(이후에는 AC 체계로 통합)
- KOICA 시범 마을 사업을 통해 형성된 농민 그룹 중 일부는 AC로 편입됨.
-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 수혜자는 Takeo 지역 내 10개 시범 마을 농가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 희망
- Peace Village 사업은 센터 건립을 제외하고는 농민 그룹이 AC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시범 마을과 중복되지는 않음.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MRD 측 의견]

- Takeo 주에 건립될 농촌공동체개발센터는 KOICA에 의해 추진된 Kampong Speu 주 센터보다 특별하다는 의견
- 사업 종료 후에도 캄보디아 정부에서 연간 2만 달러 규모 예산 지원 예정
- Kampon Speu 센터와는 달리 Takeo 센터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 지급

[사업 종료 후 관리·운영 계획]

- 센터 내 작물 재배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센터 유지관리에 사용할 계획이나, 더 큰 소득 발생할 때 관리 문제 어려움 있음.
- 사업 종료 후 센터 관리 및 운영 주체는 MRD 산하의 지방 농촌개발국

(Provincial 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 PDRD)이며, 센터 직원들 역시 PDRD 소속임.



9.2.(화) 캄보디아 농촌개발부(MRD) 회의

7) Svay Rieng 주 농업훈련센터(ATC)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시: 2025. 9. 3.(수) 10:00

☐ 장소: ATC 회의실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KRC 한종수 소장, 안성수 부장, 현지 통역
- 외부(MAFF): Kean Chanchamnan (Chief of Center), Meach Sary (Chief of Office), Khat Sotheara (Official)



9.3.(수) 농업훈련센터 관계자 회의	9.3.(수) 농업훈련센터 관계자 회의
	
9.3.(수) 농업훈련센터 방문 - 기자재 점검	9.3.(수) 농업훈련센터 방문 - 기자재 점검
	
9.3.(수) 농업훈련센터 방문 - 온실	9.3.(수) 농업훈련센터 방문 - 교육실



9.3.(수) 농업훈련센터 - 파손된 기숙사 천장



9.3.(수) 농업훈련센터 - 파손된 주방 천장

□ 주요 논의내용

[사업 관련 의견 청취]

- 센터장은 사업 전과 후 모두 센터 관리·운영 책임자로 역할하고 있음.
- 좋았던 점은 이론과 실습 병행한 역량 강화 교육(농민들의 높은 만족도)과 새로운 기자재(트랙터, 이앙기, 파종기 등) 지원
 - 농민들 중 일부는 교육 이후 온실 10동 설치하여 채소 재배 규모 확대함.
 - 대다수 농민은 온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존 노지 재배에 교육 내용 적용함.
 - 한국과 현지 전문가가 함께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하여 현지 이해관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됨(쌀, 채소 재배 관련)
- 아쉬웠던 점은 현지 기후와 맞지 않는 온실 설치
 - 우기에는 괜찮으나, 건기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온실 내 채소 재배 불가 (현재 자체적으로 차광막 설치한 상태임)

- 현지의 무더운 기후와 맞지 않는 온실에서 재배된 채소 수확 성과가 좋지 않았음.
- 현재 소형 온실 6개, 대형 온실 4개 설치되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형 온실 재배 기술 전문가가 파견되지 못함에 따라 기술 제대로 배우지 못함.

[사업 종료 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 (시설 보수 문제) 온실 지붕 파손된 채 방치된 상황(MAFF 예산(1,500달러)으로 한국산 비닐과 태국 자재 구매하여 보수하였으나 재파손됨. 현재 태국과의 분쟁으로 추가 자재 확보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산 비닐은 중고로 소량 구매 가능)
- 교육실과 주방 천장도 파손된 채 방치된 상황임.
- 사업 종료 후 사소한 시설 보수는 자체 해결, 큰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MAFF에 보고하여 예산 요청
- (운영 예산 확보 어려움) 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숙박 제공, 교통비, 식비 등) 예산 부재하며, 특히 코로나 시기 중 삭감된 예산 상황이 지속됨.
- 교재 및 커리큘럼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수익으로 센터 유지·관리 비용 충당
- '23년도 교육 예산(1,500달러)은 시급한 시설 보수 예산으로 사용함.
- 센터 연간 예산은 인건비 제외 3,000달러 수준이며, 대부분 전기료로 사용
- MAFF에서 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인 CAO 관련 예산 배분 가능성 질의 → CAO가 센터를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따로 예산 지원은 없음.
- 센터 내 기자재는 센터 내부에서만 사용
- (기자재 부품 현황) 트랙터의 경우 캄보디아 내에도 많이 도입되어 부품 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이앙기는 한국 제품으로 현지에 유통되는 부품 없음.
- (기자재 농가 대여 질의) 민간 기자재 업자와의 관계로 인해 센터 내 기자

재 사용 현실적으로 어려움 → 농민이 센터 내 기자재(ex. 트랙터) 사용하면 민간 업체에서 다른 기자재(ex. 수확기) 대여해주지 않음.

[사업 전후 센터 재배 농산물 생산량 변화]

- (사업 전) 센터 직원들 자체 소비 수준의 생산량(시장 판매 수준 X)
- (사업 후) 채소는 1년에 3작, 작기 당 240kg(40kg×온실 6개) 생산되며, 쌀은 1년에 한 번 수확하여 600~700kg 생산(사업 전에는 80~100kg 생산)
- 현재 생산된 쌀은 40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kg당 0.75달러로 도매)하고, 남은 쌀은 농민들에게 종자로 판매

[사업 종료 후 교육 수료 농민들과의 소통 및 사후관리]

- 종료 후 2년간은 교육 수료 농민들과 연락 지속하여 기술 적용현황 파악하고, 이후에는 MAFF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이용 안내함.

[교육 진행 과정]

- Svay Rieng 지역 마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하여 희망자 중 실제 벼/채소 재배 농민 선정
- 교육은 총 5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 모두 전 단계 교육 수료하는 방식
- 교육이 진행되는 5일간 센터 내 기숙사에서 숙박, 교통비 및 교육비 지원
- 교육 기간이 수확기와 겹치면서 일부 참여자는 교육받고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 수확하는 등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함.

[향후 유사 사업추진 관련 의견]

- 기자재 보수 기술 관련 교육 희망(농가 요청)
- 가축 사육 기술교육 희망(양계, 양어, 소 사육 등)
- 사업 기간 확대 희망

8) Svay Rieng 주 농가 면담

☐ 일시: 2025. 9. 3.(수) 14:00

☐ 장소: Kork Village (Svay Rompear Commune, Svay Chrum District)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Srey Pheak(통역), Bun Thoeurn 외 농민 다수
- 외부(MAFF): Meach Sary(Chief of Office), Khat Sotheara(Official), Kean Chanchamnan(ATC 센터장), Pon Hak

☐ 주요 논의내용

[마을 농업 현황]

- 주요 작물은 벼와 채소, 최근에는 가축 사육 증가(소, 식용 개구리, 양계 등)
- 소득 중 채소 비중은 60% 수준이며, 채소는 매달 수확 가능
- 주요 인터뷰 대상 농민(Bun Thoeurn)은 농지 3ha 소유(벼, 채소 각 1.5ha 재배)

[마을 내 조합 현황]

- 총 283가구 중 조합원 85가구(65가구는 생산, 20가구는 판매 역할)
- 조합원 가입 조건: 가입비 6달러, 채소 재배할 것
- 조합원 소유 농지 총 100ha이며 시장에 하루 판매하는 채소량은 우기에는 1~1.5톤, 건기에는 2~4톤 수준
- 추후 마을 조합 확대하여 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 중

[교육 참여 경험 및 변화]

- 채소, 벼 재배 농민 각 1명씩 교육 참여 경험 있음.
- 벼 재배 농민의 경우 교육 후 올바른 모내기, 비료 사용 시기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답변함.

- 채소 재배 농민의 경우 교육을 통해 땅의 산성도 관련 지식, 비료 사용 지식 습득하였으며, 온실 설치 기술과 올바른 종자 선별 지식에 대해 배웠다고 답변함.
- 다만, 교육받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낌(특히, 온실 설치 비용).
- Bun Thoeurn씨는 온실 설치 비용과 설치 후 예상 소득을 계산하여 대출금으로 비용 마련하여 온실 설치함(온실 1동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
 - 교육 참여 후 온실 2동에서 11동으로 확대 설치
 - 온실 확대 설치 후 같은 면적 대비 생산량 70% 증가
 - 온실 설치 비용은 업체에서 구입하여 설치하면 1동에 6,800달러, 직접 구입해 설치하면 3,600달러 수준(최근에는 업체 통해 5,600달러에 설치 가능)
 - 농민들은 대부분 온실 재배 희망하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 → 차광 목적의 천막만 설치하여 대체하는 수준 유지(비용 800달러 소요)

[사업 종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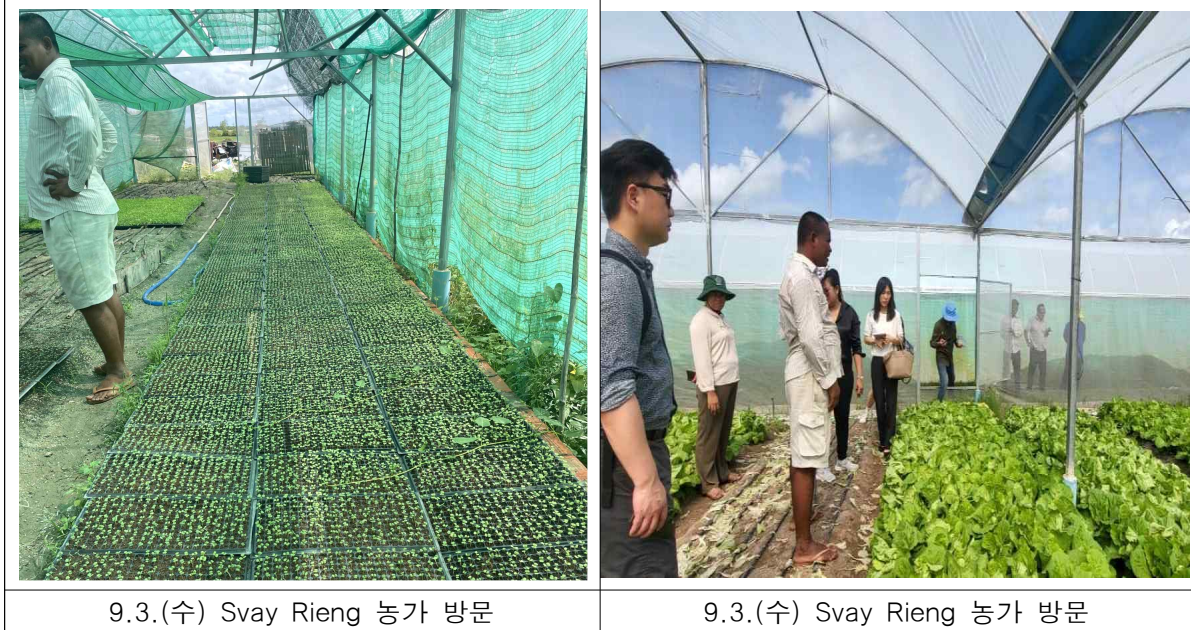
- 교육에 참여한 농민들이 미참여 농민들에게 새롭게 배운 기술 전파
- 대부분 온실이 없어 노지 상태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온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정보 찾고 있음.
- 사업 종료 후 농업기술 및 정보는 지역 외 대형 농가를 찾아가거나 텔레그램 내 채소 농가 네트워크 통해 공유

[추후 필요한 교육 관련 의견]

- 벼, 채소 재배 기술 및 가축 사육 지식(기술) 교육 희망
- 농약, 비료 사용 지식 교육 희망
- 토질 개선 교육 희망 → 우기에도 재배, 수확하기 위해서는 토지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상당한 비용 소요됨(Svay Rieng 지역은 주로 건기에 채소를 재배).
- 추후 유사 사업추진 시 참여자 확대 요청(지난 사업에는 참여자 수가 제한

되어 희망자 모두 참여하지 못함)

○ 온실 설치 비용 및 마을 조합 지원사업 희망



9) Svay Rieng 주 정부 방문 및 회의

□ 일시: 2025. 9. 3.(수) 16:30

□ 장소: Svay Rieng PDAFF 회의실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Srey Pheak(통역)

○ 외부(MAFF): Meach Sary(Chief of Office), Khat Sotheara(Official), Pon Hak

○ 외부(PDAFF): Phen Mom(Deputy Director), Em Vanna(Chief of Office), Sam Phally(Chief of Office), Kean Chanchamnan(ATC 센터장)

□ 주요 논의내용

[사업 관련 주 정부 역할]

- PDAFF(Provincial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는 ATC 교육에 참여한 농민들이 교육받은 기술을 실제로 농업에 적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PDAFF 직원들이 교육 강사로서 사업에 참여함(5명이 5개 교육 과목을 나누어 담당, 사업 종료 후에는 직원들이 참여 농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후속 협력)

[사업 경험 공유]

- 참여 농민 숙박 및 교통비 지원, 한국의 농업기술(수경재배, 온실 등) 교육, 한국 초청 연수, 교재 제작 참여 등에 만족함.
- 특히,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유한 농업기술 및 지식을 농민들에게 교육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사업 종료 후 농가 방문하였을 때, 농민들이 중고 농기계를 사용하여 교육 내용 실행하는 모습 확인함.
- 사업 전후 농가 방문 시 농민들의 농업기술 지식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함.
- 아쉬운 점으로는 한국 초청 연수 당시 경험한 기술(토양 검사)은 캄보디아 현지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 전체 사업 기간이 다소 짧았던 점을 언급
- 1년에 10차례 진행된 교육,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기에 불충분
- 센터 건립 기간과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사업 기간 중 실질적 교육 기간이 짧았다는 의견

[주 정부에서 희망하는 ATC 역할]

- 주 정부는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ATC는 농민들에게 농업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
- 향후 유사 사업 기회가 있다면 벼, 채소 재배 기술, 가축 사육 기술, 종자 관련 교육, 기자재 지원 등이 추진되기를 희망
- 특히, 농가 대상 온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사업 종료 후 주 정부 차원의 ATC 운영 계획]

- 주 정부 차원에서도 ATC 활용하고 싶지만 중앙 정부(MAFF) 혹은 한국 측의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함(센터 내 회의실 등 공간은 사용해본 적 있으나 기자재 사용 경험은 없음).
- 주 정부에서 자유롭게 센터 사용할 수 있다면 직접 센터 내 온실에서 실습 진행 희망



9.3.(수) Svay Rieng 주 정부 면담



9.3.(수) Svay Rieng 주 정부 면담

10) Takeo 지역 농가 면담 - Tram Kak

- ☐ 일시: 2025. 9. 4.(목) 10:00
- ☐ 장소: Tram Kak 마을 조합 창고
-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김두환 PM, Srey Pheak(통역)
 - 외부(PDRD): Sam Kimsong(부국장), Man Rady(센터 과장), Ngoun Viceth(센터 부과장), Soun Mao(경제과장), Nhel Sovanda(지역과 부과장), Moy Sokun(조사과 직원) 및 마을 농민 15인 내외

□ 주요 논의내용

[마을 농업 관련 주요 현황]

- 마을 인구는 920명(210가구)이며, 마을 내 온실은 1,100동
- 가구별 온실 2~3동 보유하고 있으며, 한 동에 100m² 규모
- 온실 1동 설치 비용은 고품질의 경우 m²당 11달러, 저품질 제품은 7~8달러
- 온실 보수 재료는 구하기 어렵지 않으며, 마을 내 온실 보수 기술자 있음.
- 가구별 가구원 3~5명 수준이며, 농업은 주로 부부 2인 위주로 참여
- 마을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채소 재배이며, 작물은 엽채류, 오이, 가지 등
- 엽채류는 온실 재배, 오이와 가지 등 강우에 영향을 덜 받는 작물은 노지 재배
- 온실 재배 작물의 단위 수확량은 1ha당 25톤, 오이·가지는 1ha당 20톤 수준
-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 비율은 70% 수준이며, 가축 사육(닭, 돼지)과 일용직 근로에 의한 보충적 소득 활동도 병행

[마을 내 농업 조합 운영 현황]

- 210가구 중 조합 가입한 가구는 40가구이며, 가입 조건은 가입비 20,000리엘(약 5달러)과 온실 보유임.
- 조합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이미 거래하는 중개 상인이 있는 상황이며, 추후 조합 가입 의사 있음.
- 비료, 농약, 종자 등 조합 통해 구매하고, 농산물 판매 역시 조합 통해 진행
- 농산물 판매는 2개 회사(호이온, 트로피캠)와 계약하여 진행 중
- 호이온은 약 400kg 수매하고, 트로피캠은 주 3회(회당 1톤 규모) 수매함.
- 판매 가격은 호이온은 kg당 1,500리엘(선별하지 않고 수매), 트로피캠은 kg당 2,000리엘(선별하여 수매) → 고정 가격으로 계약 기간 중 가격 변동 없음.
- 회사와의 계약 외 판매분(약 20%)은 중개 상인 통해서 판매함.

- 농민들은 소유 농지 면적에 따라 조합 지분이 산정되고, 판매 이익은 해당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됨.
- 판매 수익은 가령 한 달 매출이 20,000달러일 경우, 순수익 5,000달러 수준
- 조합 소유(조합장 명의) 건물 및 온실(3동, 3,600m²)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추가로 1.5ha 지원받음.

[농업 활동 중 어려움]

- 농업 관련 지식 및 기술 부족
 - 업체류 재배 기술(식재 등) 부족하며, 농가별 자체 파종 어려움.
 - 가축 전염병 예방 지식 부족하여 키우는 닭들이 전염병으로 폐사해도 원인이나 예방법 제대로 알지 못함.
 - 닭 사료는 시장에서 구매하여 가정 내 남은 음식물 섞어서 급여(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급여량 확대하기 위함이나 적절한 급여 지식 부족)
-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인한 어려움 있으며, 경우에 따라 kg당 300리엘까지도 하락함.

[사업추진 관련 특이사항]

- 채소 재배 기술 교육 참여 경험은 있으나, 온실 관련 교육 경험은 없음.
- 수확기에는 교육 참여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9.4.(목) Takeo 농가 면담 - Tram Kak



9.4.(목) Takeo 농가 면담 - Tram Kak

11) Takeo 지역 농가 면담 - Champa

☐ 일시: 2025. 9. 4.(목) 16:45

☐ 장소: Prey Kabbas - Champa 마을 농가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김두환 PM, Srey Pheak(통역)
- 외부(PDRD): Sam Kimsong(부국장), Man Rady(센터 과장), Ngoun Viceth (센터 부과장), Soun Mao(경제과장), Nhel Sovanda(지역과 부과장), Moy Sokun(조사과 직원) 및 인근 마을 운영위원 10명 내외

☐ 주요 논의내용

[소속 마을별 인구 및 농업 현황]

구 분	가구 수(인구)	농업 현황
A마을	297가구(1,637명)	- 소득 70% 벼 재배(1년에 3작) - 채소 재배 43가구, 가구마다 양계는 소규모로 방목 - 마을 내 공장 근로자 40%, 직조 20%
B마을	225가구(989명)	- 공장 근로자 150명, 직조 35가구 - 70%가량 농업 종사(벼 재배, 양어 등) - 소수의 건축 노동자 있으며, 소 사육지원 사업 5가구
C마을	169가구(679명)	- 벼 재배 95%, 채소 재배 53가구 - 채소 중개업 16가구, 직조 15%, 공장 노동 20%
D마을	261가구(1,295명)	- 벼 재배 80%, 채소 재배 20%, 직조 10% - 공장 노동 50%
E마을	213가구(1,094명)	- 벼 재배 95%, 채소 재배 3가구, 직조 7%, 건설 노동 7% - (새마을운동 가축 지원사업) 6가구 소 1마리씩 사육 중

[농업 활동 중 어려움 / 교육 관련 의견]

- 가축 사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육 성과가 양호하더라도 가격이 낮아 양계 등 본격적인 사육은 하지 않음.
- (벼농사와 비교하여 채소 재배 농가 적은 이유) 짧은 베트남으로의 판로가

이미 존재하고 1년에 3작이 가능하나, 채소는 가격 변동이 크고 건기에 농수 확보 어려움 있음.

- 주요 채소 작물은 오이, 여주, 콩, 가지, 애호박 등이며, 모두 노지에서 재배
- 생산량은 ha당 30톤 수준이며, 주로 중간 상인에게 판매함(가격은 오이의 경우 kg당 최소 300~1,200리엘)
- 판매 소득의 경우, 재배 규모가 큰 농민은 1년에 35,000달러(순수익 10,000달러), 작은 재배 규모의 농민은 1년에 10,000달러(순수익 4,000달러) 수준
- 채소 재배 중 병해충 관리와 비료, 농약 사용 기술 부족 등 어려움 있음.
- (주민 다수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채소 재배 전향 가능성 질의)
→ 교육 내용이 좋고, 자기 소유의 농지가 있다면 소규모로 채소 재배 가능
- 본 사업 내 교육이 채소와 양계 위주의 기술교육임을 고려하였을 때, 참여 인원은 (A, B 마을의 경우) 마을 내 25가구 정도로 예상함.
 - B마을의 경우, 채소 재배 가구가 없음에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해 25가구가량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여 답변함.
- 희망하는 교육은 채소 재배 기술, 판로 확보 방안, 가공 기술 및 양계 기술
- 교육 시기는 농한기(12~1월) 희망하며, 농번기(5~11월)는 가장 바쁜 시기
 - 농민들 매달 대출금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소득 활동을 멈추고 교육 참석하기에 어려움 있음.
- 여성 농민들의 경우, 가공 관련 교육 희망 의견 제시
 - 생산된 농산물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주스나 잼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술교육 희망
 - 가공 판매 시도해본 적 있으나, 유지 보관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뚜렷한 성과 없었음.
 - 가공품에 대한 소비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며, 여성 농민들 참여율 높을 것이라는 의견



9.4.(목) Takeo 농가 면담 - Champa



9.4.(목) Takeo 농가 면담 - Champa

12) KOICA 시범농장 사업지 방문 및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면담

□ 일시: 2025. 9. 5.(금) 10:30

□ 장소: 농장 근처 커피숍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김두환 PM, Srey Pheak(통역), 유통업체 KOC 직원

□ 주요 논의내용

[캄보디아 유기농 농산물 유통 관련 설명]

○ KOC는 유기농 농산물을 유통하는 현지 기업으로 EU, 미국, 캐나다 등 국제 유기농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취급에 대해 설명함.

○ 캄보디아 내 독자적인 유기농 인증 제도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며, 현재로서는 국제 인증에 의존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캄보디아 대형 유통업체들은 EU, 미국, 캐나다 등의 유기농 인증을 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상황임.

[유기농 인증 기관]

○ KOC 담당자는 Control Union(CU)와 Ecocert를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기관

으로 언급하며, 유럽계 제3자 인증기관들이 캄보디아 농가의 유기농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두 기관 모두 EU에서 인정된 인증기관으로, KOC는 이들의 인증을 신뢰하고 있음.

- 캄보디아 내 유기농 식품 시장에서도 이러한 국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높아,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CU나 Ecocert 인증 농산물 선호함.
- 농가 교육 과정과 관리 기록 등이 CU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관리됨(농가 교육 프로그램, 출석부 등).

[유통 체계]

- KOC는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로부터 유기농 농산물 수집하며, 현재 몬둘끼리(Mondulkiri), 캄퐁츠낭(Kampong Chhnang) 등의 계약 농가(조합)에서 유기농 농산물 공급하고 있음.
- 수확된 농산물은 조합(AC)이나 수집 센터(Collection Center)를 거쳐 프놈펜에 있는 KOC 중앙 물류센터(Distribution Center)로 운송되어 세척, 선별, 포장, 라벨 부착 등 후처리 과정 거친 후 출하됨.
- 주로 대형 슈퍼마켓(70%)과 Green shop이라는 친환경 전문 매장(30%)에 납품
- 현재 KOC가 하루에 수집하는 농산물은 3~5톤 수준으로, 자사 사업 계획상 목표인 7톤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농가들의 생산 역량이 아직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건기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음.

[계약 방식]

- AC와 계약재배 형식으로 거래하며, 계약 절차는 PDAFF와 연계되어 있음.
→ 계약재배 표준양식이 PDAFF에서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가격, 물량, 품질 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 체결
- KOC는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관리, 병해충 관리, 수확 후 처리, 선별 등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농가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이후 농가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Assessment)를 실시함.
- 예를 들어, 농산물 세척, 포장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 → 음용 가능한 물로 세척할 것, 규격 트레이에 담아 수송할 것, 농산물 등급 매기는 방식 등을 지도함.
- 신규 농가 발굴 및 계약은 개별 농가보다는 AC를 통해 진행함 → KOC는 AC 리더와 계약을 맺고, AC가 내부 회원 농가를 선정하여 공급
- 가격 협상의 경우, 계약 단계에서 공급 단가를 협상하여 결정함.
- 농가가 시장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농산물 시세가 계절이나 수입 물량 등에 따라 급변하므로, 이러한 가격 변동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 일례로 Long bean의 경우, 2년 전에는 1kg당 3만 리엘이었으나, 최근에는 500~800리엘 수준으로 폭락함.

[신규 사업 관련 협력 가능성]

- Takeo 내 협동조합에서 유기농 채소를 KOC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표명함. 현재 KOC가 일일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기농 생산자가 필요한 상황임.

	
9.5.(금) 시범농장 방문	9.5.(금) 현지 유통업자 면담

13) Takeo 주 정부 방문 및 회의

☐ 일시: 2025. 9. 5.(금) 16:00

☐ 장소: Takeo 주 정부 회의실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KRC 한종수 소장, 안성수 부장, 김두환 PM, KRC 현지사무소 직원, Srey Pheak(통역)

○ 외부(PDRD): Sam Kimsong(부국장), Man Rady(센터 과장), Ngoun Viceth (센터 부과장), Soun Mao(경제과장), Nhel Sovanda(지역과 부과장), Moy Sokun(조사과 직원)

☐ 주요 논의내용

[주 정부 역할 및 농민과의 관계]

○ PDRD(Provincial 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의 주요 역할은 농가의 농업기술 역량 강화

○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 수집 및 제공하고, 필요한 농업기술 교육 제공

○ 교육 예산은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지며 올해는 17,000달러 수준

○ 현재 예산(17,000달러)은 1년에 400명 교육 가능한 수준

○ 닭, 돼지 사육, 채소 재배, 버섯 재배, 자연 비료 총 5과목 교육

○ 교육 참여자 선발하여 과목당 10일간 교육하고 종료 후 평가 진행

○ 교육 성과 70% 수준으로 자체 판단(교육 내용의 농가 도입률을 뜻함)

○ PDRD의 경험을 토대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협력 의지 표명

[주 정부에서 기대하는 농촌공동체개발센터의 역할 및 기능]

○ 농업기술 교육 및 기자재 지원

○ 구체적으로는 돼지 출하 주기(현재 6~8개월) 단축을 위한 기술교육, 채소

재배 및 포장 기술, 육계 포장 기술, 버섯 종자 확대법(현재는 단일종 재배), 양계 부화 기계 지원, 소 사육 및 양어(민물 생선, 새우 등 지역 특산물) 기술교육 등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가축 사육 기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전염병 예방 등 지식, 출하 기술 등 부족한 상황)

[수혜자 선정 기준]

- 은퇴자, 다자녀 가족, 장애인, 과부,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 우선 선정 희망 → 소외 그룹 우선 선정 후 일반 농가 선정 방식
- 2008년, 퇴역 군인 대상 농업기술 전수 사업추진 경험 있음.
- KOICA 시범 마을(12개) 연계하여 추진 희망
- 시범 마을은 각 마을의 수도 시스템, 주민 참여율, 위생, 도로 유무, 전기 공급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추천하였으며, 마을마다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
- 현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매년 1개 주마다 2개의 시범 마을 추가 선정 예정
- 시범 마을에는 각 5,000달러 수준의 예산이 지급되며 종자 지원, 기술 지원 등으로 사용됨.

[사업 관련 농업 및 농촌 현황]

- KOICA 시범 마을과는 별개로 VDC(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운영 중이며, 이는 5개 마을 모여서 하나의 채소 조합 운영하는 방식임.
- PDRD는 VDC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 파악하여 지원(농업용수, 농로, 농업 기술 교육 등)

[주 정부 차원의 본 사업추진 계획]

- 사업 종료('28) 후 예산확보 및 센터 운영 계획 중 → 34,000달러 수준 예산 요청(PDRD → MRD → 재무부) 예정이나 확보 여부는 불확실
- 지원된 기자재 및 시범포 활용하여 실습 중심의 교육 지속 예정(현재는 10일간 교육 중 실습은 하루만 이루어짐)

- (센터 자체 운영 가능성 질의) 아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작물 재배 등에 따른 소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센터가 설립되고 온실 등 설치가 완료 되어 사업지 진행되면 소득 발생하여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교육 참여 농민 모집은 면사무소를 통해 교육 홍보 → 소외 그룹 우선 선정 → 추후 일반 희망자 중 농업 관심도, 기술 등 고려하여 선정
- (현재 교육 과목 및 커리큘럼 운영 방식) 센터장이 외부 강사(근처 기술 학교 직원, Takeo 농림수산부 직원, NGO 내 전문가 등) 채용하여 강사가 직접 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자료 제작
- (기존 교육 연간 계획 질의) 따로 기록화된 바는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회의하여 결정함.



9.5.(금) Takeo 주 정부 면담



9.5.(금) Takeo 주 정부 면담

14) 현지 설문조사 업체 면담

☐ 일시: 2025. 9. 6.(토) 09:00

☐ 장소: 프놈펜 에미온 호텔

☐ 참석자

○ 내부: 안규미 개발전략팀장, 이효정 연구원

○ 외부: 이종욱 교수(외부 전문가), Pisey Khin(Managing Director, Nuppun)

□ 주요 논의내용

[면담 개요]

- 캄보디아 ODA 사업 사후평가 및 성과관리(기초선 조사) 수행을 위해, 현지 조사 전문업체(Nuppun)와의 과업 개요 및 범위, 조사 방식 등 논의

[조사 설계 및 수행 방안 논의]

-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설문지 초안과 조사 가이드라인 등 조사 도구 제공하고, Nuppun은 제공된 조사 도구를 토대로 파일럿 조사 실시
- (데이터 수집) Nuppun은 일반적으로 KoboToolbox를 사용하고 있음.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가능하며, SurveyCTO 등 다른 ODK tool과도 호환 가능
- (품질관리) Nuppun 내 데이터 관리팀이 수집된 데이터 검수하여 이상치나 누락 응답을 식별하고, 오류 발견될 경우 조사원이 재방문하거나 전화 확인 등을 통해 데이터 수정 및 보완함.
- (결과 정리 및 보고) 자료수집 완료 후 data cleaning과 기초 통계분석 포함된 요약 보고서 제출 가능(필요한 경우 Nuppun 측 보고서 참고 가능)

[조사 일정 논의]

- Svay Rieng 지역에서 종료된 사업의 사후평가 실시 후, 이어서 Takeo 지역 내 추진사업 기초선 조사 실시
- 계약 체결 완료되는 대로 세부 일정 수립하여 조사 추진(설문지 초안 검토 → 번역 및 검수 → 조사원 교육 → Pilot Test → 피드백 반영 후 최종 설문 확정 → 본조사 실시 → 데이터 정리 및 산출물 제출)
- 설문 문항에 따라 다르나 지역별 2주 내외로 현장 자료수집 예상됨.

[표본 및 대상자 구성]

- 사후평가 표본(Svay Rieng)의 경우, 우선순위 표본 목록에 따라 조사 진행 후 누락 대상 발생하면 KREI에서 제공한 목록 바탕으로 대체
- Svay Rieng 사업은 종료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주, 질병, 사망 등의 이

유로 일부 수혜자와의 연락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제기(Nuppun 측 타 사업 수행 중 표본의 약 30% 정도만 추적 가능했던 사례 언급)

- Takeo 지역 기초선 조사 표본은 사업 수혜농가, 비수혜농가 각 100가구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안 논의(100가구 내외 표본에는 2주 정도 소요 예상)

[조사 인력 및 구성]

- 필요시 두 개 지역에 동시 투입할 수 있도록 2개 팀 운영하며,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
 - 각 팀은 supervisor와 여러 명의 조사원으로 편성되며, 사무실 내 Lead Facilitator가 데이터 검수 담당함.
- 조사원 1인당 하루 평균 3가구 면접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4가구까지 수행
- 인터뷰 한 건당 소요 시간은 설문 문항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
- 조사 시작 전 조사원 대상 사전 교육 실시하며, 제공된 설문지 토대로 현지어(크메르어) 번역 및 적합성 검토 예정

[예산 및 비용]

- 가구당 소요 비용 산출 가능하나 정확한 단가는 설문 문항 수, 조사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짐.
- 농가 면담 시 응답자에게 현금 대신 치약, 비누 등 기념품 제공하며 비용은 예산에 포함됨.
- 최종 건적은 조사 설문지와 표본 확정 후 상세 건적서 통해 예산 협의

[향후 계획 및 후속 사항]

- 설문지 초안 및 표본 리스트, 사업 관련 문서 등 자료 Nuppun 측 전달
- Nuppun 측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샘플 자료 제공



9.6.(토) 현지 설문조사 업체 면담



9.6.(토) 현지 설문조사 업체 면담